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최대 이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확대가 5·31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차기 광역단체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이번 선거방송 토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토의할 분야로 이들 세 가지를 꼽았다. 출마 후보들도 '경제활성화'를 자임하며 경제활성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5·31 지방선거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기관인 한백 리서치에 의뢰, 광주지역 유권자 1천명과 학계 및 언론·시민단체 대표 등 여론주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모두 광주의 최대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확대를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6%p)

광주일보가 KBC와 공동으로 지난달 16~17일 광주·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차기 시·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광주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38.8%)와 '일자리 창출'(34.5%)을, 전남도민들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30.3%)과 '지역경제 활성화'(24.8%), '일자리 창출'(22.6%)을 각각 꼽았다.

◇유권자=광주시 선관위 조사에서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토의할 분야로 '경제·노

동분야'(53.5%)가 꼽혔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방안'(44.4%)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25.9%)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확대'(49.3%)가, 교육·문화분야는 '교육재정 확보와 명문고·지역대학 육성'

■ 시선관위 '선거 토론회 주제' 여론조사
동구- 도심공동화·상권 침체 과제
서구-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대책
북구- 첨단단지 신기술 산업 유치
광산- 공단지역 지원·육성 현안

(50.9%), 정치·행정분야는 '재정지립도 확보 및 중앙예산 확대'(26.6%)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책'(23.1%)이 현안으로 꼽혔다.

◇여론주도층=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경제·노동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60.0%)을, 사회·복지분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확대'(65.5%) 등을 각각 꼽고 '경제·노동분야'(51.5%)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현안=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경제분야에서 '도청 주변 도심공동화 및 상권 침체 대책'(60.4%)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사회·복지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책'(72.5%), 정치·행정분야에선

'재정지립도 확보'(47.3%)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48.2%)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은 반면 여론주도층은 '중앙공원 조성 및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입장'(45.2%)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사

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복지 확대'(50.9%)와 '상부지구 모뎀촌 정비계획 및 대책'(34.4%)이 꼽혔다. 남구청장 선거의 토론 주제로는 '남구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대책'(46.9%·경제분야)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광산구청장 선거의 토론 주제로는 '공단지역 지원 및 육성'(30.4%)이,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복지 확대'(40.7%)가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됐다. ◇후보자=후보들의 공약도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는 2010년까지 일자리 13만4천개를 만드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열린우리당 김재균 예비후보는 '경제 부흥으로 잘 사는 광주'와 '소외된 이웃이 없는 광주'를, 조영택 예비후보는 '첨단경제도시 육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역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오병은 후보는 '경제 양극화 해소로 서민경제를 살려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 중앙당 관계자와 김재균·조영택 광주시장 경선 후보 등은 10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방문, 지지를 호소한 뒤 필승을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공천 효력 정치 기저부 신청을 했던 변명환 예비후보가 10일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재창출되도록 머릿돌 역할을 하겠다"며 승광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5·31 지방선거 현장

"DJ 관련자료 '김대중홀'에 기증"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김대중홀'이 개방된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광주에 조성,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70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조만간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선거 2강 구도 만들것"

○민주당 오병은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시장 선거를 자신과 민주당 박광태 후보와 2강 구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확대 ▲행정지원시스템 시행 ▲봉사부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의원은 "광주·울산·인천·부산에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후보를 추월하고 있다"며 "법정선거일 전까지 지지율을 올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오 후보와 박광태 후보와의 지지율을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향 수산물유통중심지 건설

○박중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0일 "고흥 노동향을 수산물 유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노동향을 찾아 "노동향은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노동수산시장에 들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며 "간판을 재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소비자의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사죄·수사확대해야"

○박용두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구속과 관련 성명을 통해 "정회장과 농협중앙회는 210만 농민 조합원과 10만여명에 달하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맘과 눈물을 앗아간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그동안 지속적으 제기된 선연문 불법 대출, SK글로벌 부자손실 등의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일봉 후보 3대 프로젝트 제시

○황일봉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는 10일 백운동 대원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방문 ▲초대형 노인건강문화타운 '효자촌' 조성 ▲효사랑 실천운동 다각화 ▲인간 중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등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황 후보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분야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필수적 요소"라며 "남구를 노인복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현구 후보 중앙정치 개입 중단 촉구

○무소속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정신 훼손하는 중앙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 후보는 "광주가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면 지역주의 해체의 신호탄이자 지방자치의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는 또 다른 '광주의 전략적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참신한 중도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갑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전갑길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광산구 일곡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 10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각 구청장 후보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전 후보는 "광산구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며 "역사체험관과 민속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자와 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광주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섭 후보 화학습유 노조위원장 간담회

○민주당 오현섭 여수시장 후보는 10일 여수산단 민주노총 산하 화학습유 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통한 지역 세수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산업발전기금 조성, 기업관리자의 주주 현지화 등을 정책화 방안으로 제시하며 "당선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해 산단과 지역발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병직 후보 '장성발전 공약' 발표

○이병직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는 10일 장성을 선거사무소에서 '장성발전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황룡강시대, 부자 장성시대를 만들려면 청렴성을 갖추고 장성을 잘 아는 인물이 군수가 되어 열린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은 ▲경제중심 부자장성 만들기 ▲중앙·서부·남부·북부 등 4개 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제철형 웰빙 관광레저타운 조성 ▲친환경농업 메카 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유두석 후보 '암송 결의대회'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는 10일 장성을 선거사무소에서 '암송 결의대회 및 장성과의 약속 조인식'을 열고 장성발전 비전과 공약 실천의지를 다졌다. 고건 전 총리 후임단체인 무인회 강중유 전남지회장을 비롯 각계 인사와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유 후보는 "30년 중앙경제행정 경험과 국내외 인맥을 총동원해 주식회사 장성을 '도농복합형 친환경신도시'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돈바는 부자농촌'으로 만드는 데 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군민의 행복과 '미래장성'을 품을 담은 풍선 500개를 하늘에 날리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일~16일까지 부재자투표 신고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가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하는 부재자투표 신고는 16일까지 낮 12시 간 실시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서의 경우,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전국 구·시·읍·면의 장 앞으로 도착하도록 해야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90만명 규모였던 부재자투표자 규모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67% 가량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최진민기자 man21@

한나라 남구청장 후보 안영신 북구청장 후보 김천국



한나라당 광주시장당은 9일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안영신(47·사진 왼쪽) 동강대 교수를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천국(49·오른쪽) 전 자민련 광주시장 위원장을 북구청장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정승인공고
한정승인공고
한정승인공고

무담보
무보증
기계장짜이음철인금전
010-3144-5830

공무원대출(직장엔)
공무원대출(직장엔)
공무원대출(직장엔)

출장뷔페·도시락남품·위탁급식
파티외식산업
최급, 칠순·팔순 잔치, 명민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시와 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여유회
식탁·인차 무보지현
연회장 주차장 준비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임도/양수
C&S